



정교회주보

제2579호

2026년 5월 3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동역자 실라와 디모테오에게 복음과 사명을 전하는 바울로 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성 에르미아스 순교자
조과복음 : 요한 20,19~2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오순절 제 2 응송 265
- " 찬양송 265
- " 입당송 265
- " 시기송 265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 인하여' ... 85
- 사도경 : 사도행전 2,1~11 265
- 복음경 : 요한 7,37~52; 8,12 ... 106
- 오순절 영성체성혈송 266
- '우리가 참 빛' 대신 '오순절 찬양송'

* 성령 강림 의식
오순절 의식서 88

[21회] 제2차 선교 여행

주 후 49년경, 바울로는 교회의 축복을 받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동역자 실라와 함께 육로로 북부 시리아와 갈리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신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그는 각 교회에 예루살렘 사도 회의의 결정을 전하였다.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한 교회의 판단을 알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권면한 것이다.

이어서 바울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신앙이 깊고 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던 젊은이 디모테오를 만났다. 바울로는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여 자신의 선교 여정에 동행하게 하였다.

디모테오는 이후 바울로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선교 여정에서 바울로를 충실히 돕는 믿음 깊은 동역자가 되었다.

삶과 신앙 이야기

황경수 스테파노스 신부

20대 푹푹한 시절에 인연이 되어 종친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임기의 황씨 전 북종친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3회(9년) 임기를 마치고 다른 종친분에게 회장직을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종친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국가 공적연금을 받으며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지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농협 조합장, 중앙·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삶이 순탄하셨던 탓인지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공통점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종친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님은 성당 신부님이신데, 왜 종친들에게 성당에 나오라고 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한 종친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 차례 병문안을 가서 예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 그만둘까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찾아가 말씀을 드리니 임종 일주일 전쯤에는 관심을 갖고 들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설명드리며 이해를 돕다가 결국 의식이 혼미해져 세례 문답만 한 채 끝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신부님께 기도 부탁도 못 드린 것이 아쉽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빈소에서 고인을 위한 안식의 기도를 드리기는 했지만, 생명이 남아 있을 때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세례성사를 집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 종친회 정기모임에서 혹시 종친분들이나 가까운 친인척, 지인 가운데 평소 그리스도 신앙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참석한 종친분들께 안내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병상에서 세례성사도 집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결코 따로일 수 없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교우는 믿음이 유년기 수준에 머물러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채 세상사가 어려워지면 쉽게 넘어지거나 냉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교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와 고난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 마침내 믿음의 결실인 부활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일을 더 앞세우는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고,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알곡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오늘의 가시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마태오 13,30)를 통해 “수확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모아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 한국정교회 교우들은 누구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이 한국정교회 모든 교우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가 박사의 점수 (1)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1952년 뉴욕의 분만실은 아드레날린 (부신 호르몬의 하나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물질)과 불안으로 가득한 전쟁터였다. 한 아기가 방금 태어났지만, 모두가 기다리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기는 창백했고, 맥박도 뛰지 않았으며, 아주 조용하기만 했다. 의료진의 눈에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바뀌처럼 굳세고 확신에 찬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아기의 점수를 매깁시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바로 버지니아 아프가 박사였다. 이 단순하고도 평범한 말은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 결과 의학은 영원히 변화되었으며 새로 태어난 수백만 명의 아기들이 생명을 선물받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 버지니아 아프가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다. 원래 그녀의 꿈은 외과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40년대에 여성이 외과 의사를 꿈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수술실로 통하는 문은 편견으로 인해 여성에게 사실상 닫혀 있었다. 그녀는 여성 외과 의사를 고용할 병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여성 의사들도 사임하거나 움츠러들곤 했다. 그러나 아프가는 움츠러들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했다. 마취학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후퇴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백만의 생명을 구하게 될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아프가는 콜럼비아-장로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날마다 조용한 비극을 목격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 몇 분 만에 마치 촛불이 꺼지듯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의사들에게는 아기가 위험한 상태인지, 혹은 단순히 무기력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언어가 없었다. 체계적인 제도나 규칙도 없었고, 오직 본능에 의지해야 했는데, 그것은 종종 실패로 끝나곤 했다.

(다음 주보에 계속)

주간 예배 안내

* 6월 1일(월)

성령 축일

오전 9시 : 초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가평 수도원 철야예배

6월 12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 및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추도식(4주기)이 거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각 성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서울 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성 니콜라스 대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작업에 신자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성니콜라스대성당)

■ 바로 잡습니다

탁상용 축일 달력의 6월 5일 사도경 구절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존) 사도행전 2:14-28
(정정) 로마 2:14-28

알림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늘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비잔틴 성화 세미나 시작

6월 4일부터 30일까지 대교구청 선교회관에서 비잔틴 성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가 잘 진행되고 참가자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부활절 기간 종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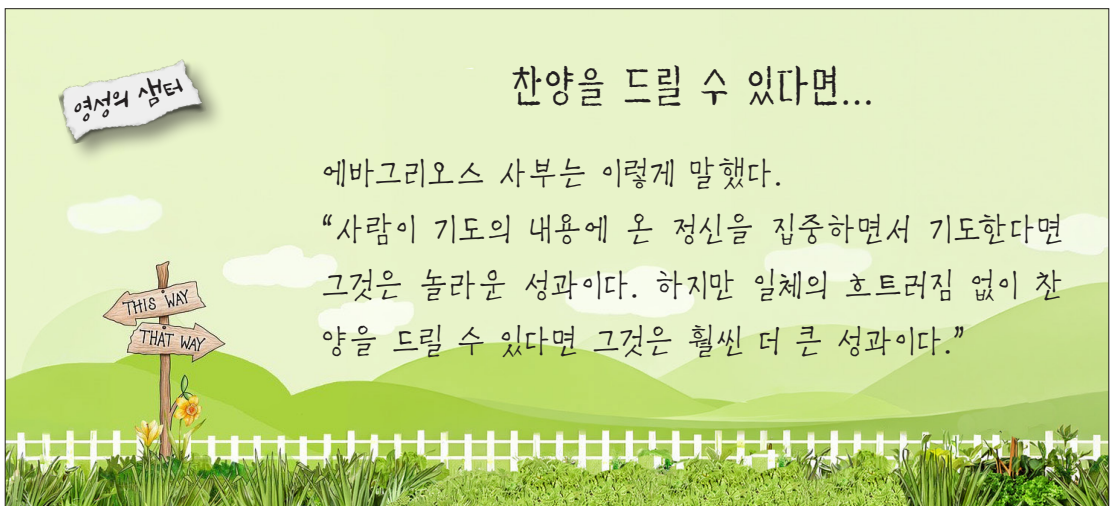
지난 5월 20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40일간의 부활절 기간이 끝나고, 21일 목요일에는 주님의 승천 축일을 맞아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서울 성당에서는 부활절 종례 저녁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주님의 부활 축일을 합당하게 경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대교구청 건물 방수 공사

지난 주말(23-24일), 서울 성당 '하느님의 일꾼들'과 신데즈모스 회원들의 봉사로 대교구청 건물 방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순절 주간 금식 해제

이번 주간은 오순절 축일 경축 기간으로 수, 금요일 금식이 해제됩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에바그리오스 사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기도의 내용에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성과이다. 하지만 일체의 흐트러짐 없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성과이다.”